

고흥군, 일하는 청년 지원 140세대 임대주택 짓는다

중소기업 종사자·창업인 등 대상
일자리 창출 따른 주거비 부담 ↓

고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임대주택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주택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국비와 기금 예산 등 총사업비 351억 원을 투입해 140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입주자들의 창업과 생활편의 등을 위한 회의실, 실내운동 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창업인 중 청년(19~39세)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

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착공, 스마트 복합밸리 확대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창출 수요가 발생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금번 공모사업을 신청해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청년층과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과 주거비 지원,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추진, 귀농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기람 기자

올 국·도비 공모 1500억 확보
보성군, 전년 대비 1213억 ↑

보성군이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도 확보액 287억 원 대비 1213억 원 증가한 수치다. 보성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71건, 236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이 중 58건이 선정됐다. 이달 말에도 선정 가능한 공모사업이 남아 있어 최종 선정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40억 원) △2024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149억 원) △울포항 어촌신활력 증진(300억 원) △별교갯벌 복원화(70억 원) △별교봉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 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61억 원)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407억 원) 등 58개 사업이다. 확보액 1500억 원 중 국·도비가 832억 원(55.5%), 군비 593억 원(39.5%), 기타 75억 원(5.0%)으로 외부 재원이 60.5%를 차지한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도에도 보성의 미래와 군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여수시,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4개분야 18건 경합… 1위 차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수여하는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사전심사를 통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으며 여수시는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는 ‘언제 어디서나 꼭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폐광지역 거주 노인 보호활동
화순경찰 동면파출소



화순경찰서 동면파출소(소장 김기갑)은 화순광업소가 있는 동면 노인회(회장 이준배)와 범죄와 교통사고 방지,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면파출소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원광인당한방병원 관계자와 함께 침술, 의료용품 배부, 의료상담을 진행하는 등 정성치안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노인회 이준배 회장은 “사라져 가는 농촌의 노인들 말벗만 돼줘도 고마운데 주민들에 한방진료까지 해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 여수시 제공

“내년 반값 관광”… 강진군, 관광 활성화 전략포럼서 시동

인구소멸 위기극복 대책 추진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에 시동을 걸었다. 강진군은 20일 강진아트홀에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시책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하고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을 비롯해 강진군민, 관광 전문가 및 관광 관련 업종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국가적 경기침체와 지방 인구감소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특단 대책으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내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 반값 관광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관광객

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 관광 등 3차산업뿐 아니라 1차산업의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진의 농수특산물들까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상품으로 소비자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 강진방문의 해’를 성공으로 이끈 강진군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운복 기자

구례군 주민들,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 두손 모았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도움 될 것”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소 대상지 발표를 앞두고 구례군 주민들의 양수발전소 유치 기원 캠페인이 줄을 잇고 있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이후 구례군 읍면별 사회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지역 사회단체 중심으로 릴레이 유치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캠페인을 통해 “양수발전소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감소

와 고령화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수발전소 입지 최적지인 구례를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례군은 양수발전소 예정지인 문척면 주민 93.4%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동의했으며 수몰 예정지 10여 가구도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높은 주민 수용성이 확인됐으며 발전소 유치에 기대감을 보였다. 유치 예정지인 문척면 주민들이 유치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문척면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한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영상이 퍼지면서, 주민 중심의 차별화된 구례군의 유치 노력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곤충산업 발전 현장간담회 개최
전남농기원, 사업 발굴 매진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연구개발사업 발굴에 나섰다. 지난 8일 곤충잡업연구회에서 전남산업곤충연구회(회장 방재남) 회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갈색거저리·굼벵이·메뚜기 생산 농가와 곤충 유통농가가 참여해 생산현장 및 유통과정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안전으로 △균일품질의 곤충산물을 얻기 위한 먹이의 표준화 방안 강구 △갈색거저리 안정적 생산을 위한 수분공급방법 개선 △갈색거저리 분변토의 퇴비 활용방안 △갈색거저리 기름의 활용방안 및 연구회 활성을 위한 곤충 종류별 소도임 결성 등이 논의됐다. 12일에는 화순에서 전남양잠연합회(회장 허완) 회원과 도내 양잠농가와 내년 가을누에부터 농가 보급 누에씨 품종이 백옥잠에서 도담누에로 바뀌는 데 따른 특성 설명과 곤충잡업연구회 내 양잠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방안 등을 설명했다. 올해 양잠농가 우량 누에씨 공급에 헌신한 곤충잡업연구회 이유범 연구사가 전남양잠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누에와 꿀벌을 비롯한 산업곤충에 대한 사육·가공 및 유통시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용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